

‘대장금’

뮤지컬 진화는 계속된다

‘댄서의 순정’

영화 뮤지컬로 만든 ‘무비컬’... 드라마 뮤지컬 제작 붐물



MBC와 '난타'의 PMS 프로덕션이 공동제작하는 '대장금' 주연을 맡은 김소현(오른쪽)과 임기준.

드라마와 영화가 잇따라 뮤지컬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영화를 소재로 한 뮤지컬은 '와이키키 브라더스'와 '겨울 나그네'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 흥행 영화를 원작으로 한 이른바 '무비컬(Movie + Musical)'이 쏟아지면서 국내 창작뮤지컬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독신여성들의 일과 사랑을 깔끔하게 그린 '싱글즈' 역시 6월 공연을 목표로 현재 뮤지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싱글즈'는 영화에서 동미역을 맡았던 엄정화 등이 캐스팅 물망에 올라 있다.

다고 발표했다. 김두한의 청년기를 배경으로 삼은 뮤지컬 '장군의 아들'은 김두한과 하야시의 대결구도, 김두한과 두 여인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밖에 올해 흥행 대박을 터트린 '미녀는 괴로워' 역시 뮤지컬 작업에 대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며 극단 유는 안소니 퀸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길'을 뮤지컬로 만든 '힐스미나'를 공연 중이다.

드라마쪽에서는 5월 공연 예정인 '대장금'이 눈에 띈다. MBC와 '난타'의 PMC 프로덕션이 제작하는 '대장금'은 60억원이 투입된 대작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투어까지 계획하고 있다.

장금이 역에는 '오페라의 유령'의 김소연과 안유진·최보영이 캐스팅됐으며 민정호 역에는 '주몽'에서 영포 왕자로 출연한 원기준과 김우형이 출연한다.

이처럼 유명 영화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속속 제작되는 이유는 이미 작품성과 흥행면에서 한차례 검증받아 관객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창작 뮤지컬의 고충 가운데 하나인 '홍보' 면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일하게 제작할 경우 오히려 '일작'이 발목을 잡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천 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의 남자'를 뮤지컬로 만들었던 '이'의 흥행 실패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 '댄서의 순정'을 뮤지컬로 만든 동명의 작품에서 주연을 맡은 유진(오른쪽)과 최원철.



박지현의 문화카레

‘조성위’가 해법이다

‘광주의 미래’를 담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가 내달 특별법 발효와 시행령 제정, 종합계획수립 등을 앞두고 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인 문화관광부 추진기획단의 수장을 전격 교체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조치는 추진기획단과 지역사회간의 뿌리깊은 불신의 벽을 허물려는 신호탄으로 보여 향후 문화수도의 밑그림은 어떤 형태로든 지간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실 그동안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광주 사업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에 먼' 존재나 다름없었다.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지역여론을 무시한채 (사업) 밑부처는 바람에 정작 문화수도의 주체인 지역민들은 번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지하 실험실'을 연상케하는 아시아 문화전당의 컨셉도 그렇고, 제 목소리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조성위)의 위상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 속을 태웠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추진기획단의 인적 쇄신은 담보상대에 머물렀던 조성사업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조성사업이 저절로 굴러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오산이다. 청와대가 조성위·추진기획단의 조직과 아시아 문화전당, 인적 운영과 쇄신방안 등 3개분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사뭇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추진주체를 둘러싼 예기치 않은 파워 게임이 벌어질 경우 조성사업은 목표를 잃은 채 표류하게 될 지도 모른다.

조성사업이 중심을 잃지 않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를 이끌어 갈 무게감 있는 구성체가 절대적이다. 최근 '있으나 마나'한 조성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민들 사이에 힘을 얻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실제로 조성위는 '총리급 위원장'이라는 간판을 무색케 하는 단순한 심의기구, 그 뿐이었다. 작년 연말 더 이상 추진기획단의 틀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문광부에게 조성위 산하 집행기구 설치를 요구했던 송재구 위원장의 제안은 아직까지 '대답없는 메아리'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송 위원장이 이끄는 재기 조성위원회 출범 4개월 동안 추진기획단과의 미묘한 힘겨루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파국적 논쟁을 낳는 상황이다.

조성사업이 문화전당 건립만으로 끝나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점철된 추진기획단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성위의 위상 정립은 시급하다. 그것이 어렵게 띄어있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매듭을 푸는 실마리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김민호기자 jhpark@kwangju.co.kr

2007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6일~12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

조명 디자인의 현재 '백개의 태양'전

30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

평등세상 여성의 힘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다채

사진 기자들이 앵글에 담은 취재 사진을 한 데 모은 '2007 광주·전남 보도 사진전'이 6일~12일까지 광주 신세계 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김양배)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지역 사진가들이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취재한 작품 130여점이 선보인다.

또 광주일보 위장량 기자의 '추 찾아선암사 온 꽃'을 비롯 2006년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작 1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이밖에 '적토미를 아시나요'(고경석 기자) '물 세례 받는 현대하이스코 노조'(최현배 기자·이상 광주일보) 등 굵직한 사진, 사교와 삶의 현장을 스के치한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전시에서 이어 오는 14~25일에는 전남도청에서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양배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한미



위장량 작 '추 찾아선암사 온 꽃'

FTA를 둘러싼 갈등과 아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역사의 현장을 누비며 한 컷 한 컷 취재한 사진가들의 열정과 땀을 한데 모았다"고 말했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조명에서 벗어나 빛을 통해 인간의 삶을 디자인한 작품들이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재)광주디자인센터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등이 공동 주최하는 '백개의 태양'전이 30일까지 광주디자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카르텔(Kartell), 플로스(Flos), 폰타나아르테(FontanaArte), 엘텍(Eltek)사 등 세계적인 이탈리아 조명 디자인 회사들이 출품한 130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디자인으로서의 빛', '예술로서의 빛', '과학으로서의 빛' 등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조명의 역사와 조명 디자인의 현재를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으로서 빛'은 샹들리에, 촛대, 스탠드, 사무용 램프 등 실용성과 미적 측면을 두루 갖춘 생활 조명 기구들이 선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스튜디오 이탈리아 디자인사의 'BLOW'

'예술로서의 빛'에는 작가 로베르토 팔라니(Roberto Fallani), 에우제니오 카르미(Eugenio Carmi) 등 유명 디자이너 7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들은 인간의 삶을 색채와 빛으로 형상화한 것들이다.

'과학으로서의 빛'에서는 광섬유를 조명 분야에 응용,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만남을 시도하는 첨단 작품들이 소개된다. 관람료 2천원. 문의 062-611-503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는 8일은 올해로 99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 1만 5천여명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데서 유래했다.

광주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 단체는 '빈곤과 차별을 넘어 여성의 힘으로, 열려라! 평등 세상'을 주제로 8일 오후 6시 광주 YWCA 강당에서 3·8 광주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올 여성대회의 주 테마는 여성 빈곤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한미 FTA 반대와 비정규직 철폐.

이날 오후 도청 삼지공원 등에서 거리홍보전을 가진 뒤 열리는 분행사에서는 광주시청 등 비정규직 투쟁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올 3·8 여성상 수상자인 현대자동차노조에 대한 시상식과 풍물과 '마루' 공연 등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주최측은 7일 오후 3시 광주시청앞에서 광주시청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부동산컨설팅' (Daein Real Estate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011-625-0510 and services like '1층 50평 임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261-8949 and services like '쌍관대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2-973-9174 and services like '무인모텔투자: 2500평'.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2-371-1900 and services like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Court Auction) with contact info 222-8446 and a table of auction lots.